

## 세계 외식산업의 전망\*

이 동 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1. 세계 외식산업 전망

2010 - 2015년의 외식산업 매출 성장은 꾸준히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점포 수와 거래량 모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과 서유럽은 예측기간 말에 회복이 예상되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빠른 속도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몇 년간은 중국과 브라질의 성장이 선진시장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나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이미 일인당 점포수와 거래량 모두 소득이 비슷한 수준의 나라보다 훨씬 앞서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서 매출도 성장하지만, 시장이 성장하면서 신규점포수와 거래량 증가는 정체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미개발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적인 차별화 요소가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모두 중요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성장의 주역은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역은 다른 지역에서는 성숙한 시장이지만, 이 지역의 튼튼한 수요를 바탕으로 세계 매출과 점포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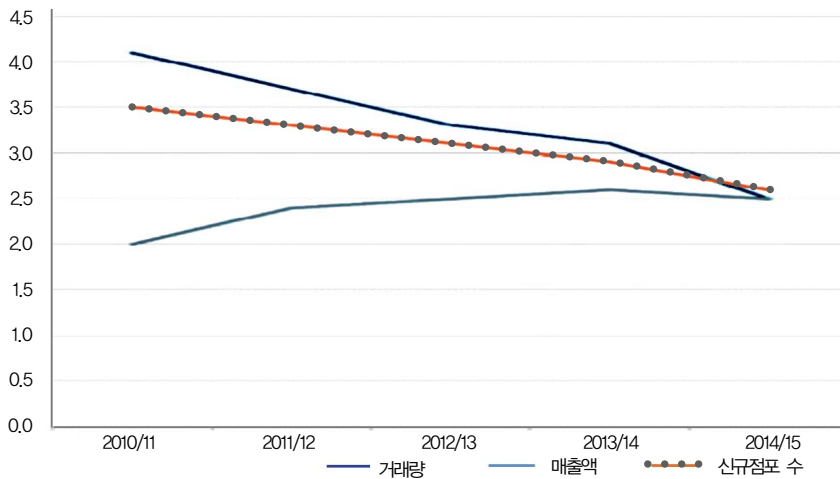
가관점/키오스크 영역 또한 아시아 지역의 영향으로 주요 성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 (petit211@krei.re.kr, 02-3299-4322).

신규 외식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점이며 싱가포르나 대만에서는 아직도 인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는 예측기간 내내 광범위한 성장이 예상된다. 아시아 수요가 성장의 중심에 있고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강한 수요가 예상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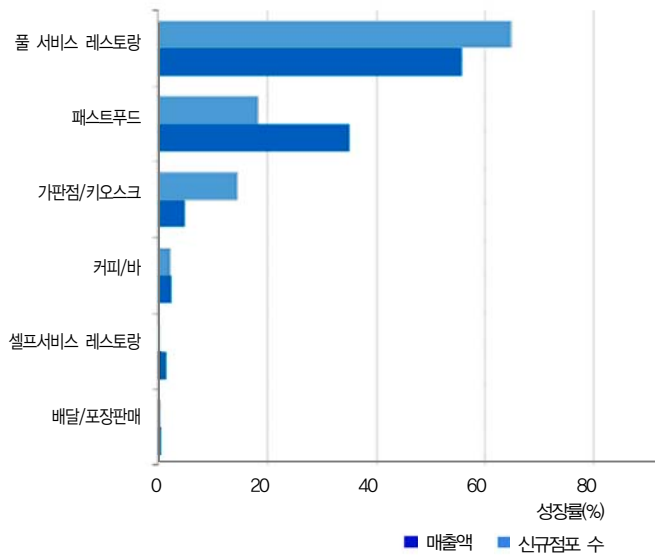
그림 1 세계 외식산업의 시장 전망, 2010~2015

단위 : %



자료 :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그림 2 세계 외식산업의 부문별 성장률 전망,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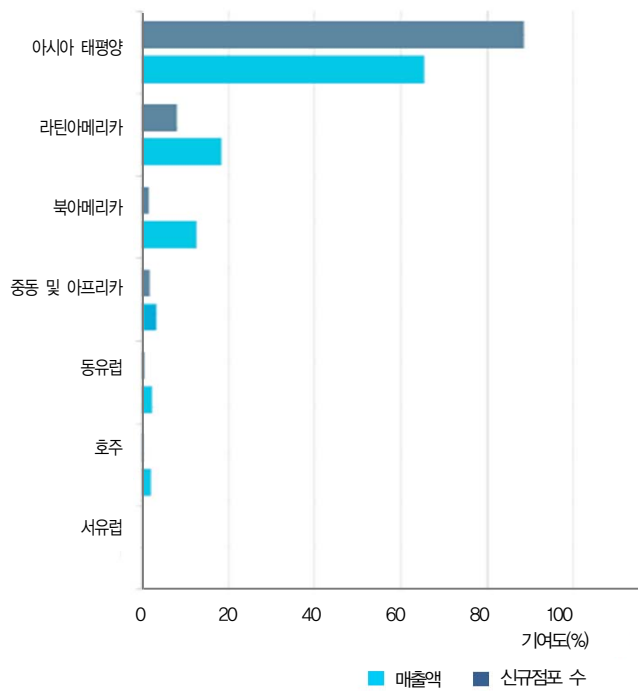
자료 :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며 북미는 고급화가 진행됨에 따라 매출 성장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0 - 2015년 기간 중 세계 상점 증가의 90%와 매출성장의 2/3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이외에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페루와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의 성장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활발한 내수와 보수적인 은행제도 덕분에 브라질은 불황에서 탈출하였으며 향후 5년간 성장할 것이다. 콜롬비아 또한 경제안정 덕분에 빠르게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상당한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북미가 유일하다. 북미의 경우 고급화된 패스트푸드 추진을 통해 매출신장과 점유율 확보를 위해 다시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세계 외식산업 성장률 지역별 기여도 전망,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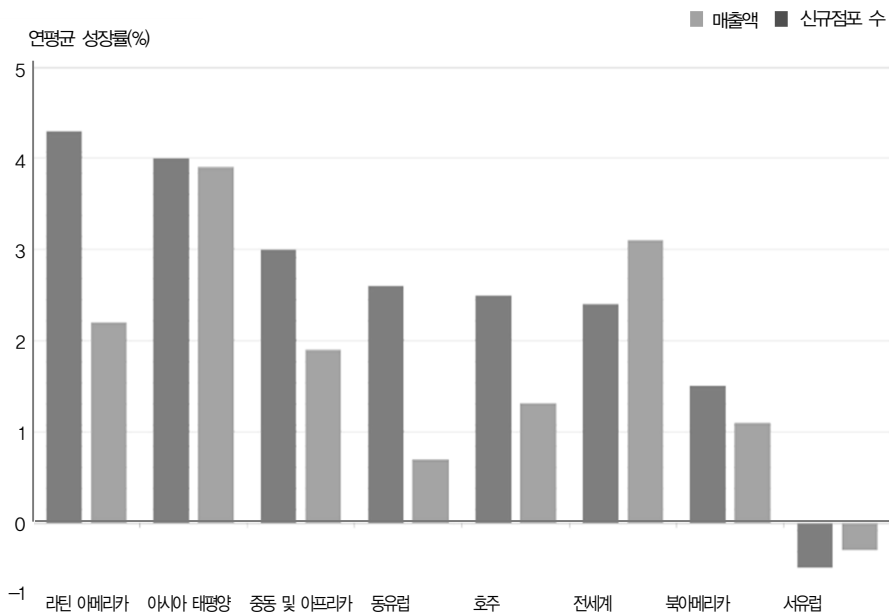


자료 :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2010~15년에 라틴 아메리카, 중동/아프리카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성장은 세계 평균 성장률을 크게 초과하며 세 지역 모두 연평균 3%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 지역의 매출성장은 상점성장을 초과하고 점포 당

평균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쇼핑센터와 다른 소매점/오락시설은 일반적으로 체인을 세우기에 선호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점포당 평균매출은 안정적이며 다른 두 지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인데 이는 모든 소득계층의 수요를 유인하고 있는 가판점과 현지 독립형 점포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높은 매출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중동,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팽창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브라질, 콜롬비아 및 여러 시장으로부터 수요가 많아 체인점 외식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시아(Alsea)<sup>1)</sup>와 아르코스 도라도스(Arcos Dorados)<sup>2)</sup>와 같은 프랜차이즈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진 세계적 체인점과 함께 가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은 높은 외식수요를 바탕으로 투자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지역의 정치 불안은 매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소득증

그림 4 세계 외식산업의 지역별 성장률 전망, 2010~2015



자료 :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 1) 알시아(Alsea)는 멕시코 프랜차이즈 업체로, 도미노 피자, 스타벅스, 버거킹, 캘리포니아 피자 치킨 등 다양한 브랜드의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음. 2010년 기준 매출액은 7.1억 달러, 순이익은 1.2억 달러임.
- 2) 아르코스 도라도스(Arcos Dorados)는 맥도날드의 최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2007년 맥도날드가 7억 달러에 인수함.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등 19개국에 1,800여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매출액은 36억 달러 수준임.

---

가와 더불어 젊은 세대가 수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미, 서유럽 및 호주지역의 방문고객 수는 감소할 것인데 이는 높은 실업과 정부의 긴축재정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시장점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고 시간대와 가격범위의 조정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영역의 운영자들도 이를 쫓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패스트푸드와 다른 영역 간 차이점이 없어지게 되어 치열한 경쟁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1.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